

34회 공간국제학생건축상 1차 주제설명회

The 34th Space Prize for International Students of Architecture Design

위태로운 세계의 건축

Architecture in a Precarious World

조민석(건축사사무소 매스스터디스 대표)

Minsuk Cho (Principal, Mass Studies)

안녕하세요.

34회 공간국제학생건축상 2021년 올해 심사위원을 맡게 된 건축가 조민석입니다.

Hello. I am Architect Minsuk Cho, a juror this year, 2021, for the 34th Space Prize for International Students of Architecture Design.

대한민국 서울에서 베이스를 가지고 건물을 주로 만드는데 전념하는 아키텍트입니다.

I am an Architect based in Seoul, South Korea, and dedicate myself to making buildings.

올해 주제 제목은 <위태로운 세계의 건축>입니다.

The title of this year's theme is "Architecture in a Precarious World."

짐작하시다시피 어떻게 보면은 어디서부터 개입해야 할지 너무나도 거대하고 복합적으로 지난 1년 만의 상황이 아니고 지난 수 십 년간 축적되어 온 위태로운 생태적으로나 경제적 측면에서 어떤 단호한 대응과 큰 변화를 요구하는, 위태로운 상황들을 들여다보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As you can imagine, not just in the past year, but in past decades, we have encountered precarious ecological or economic conditions that are too huge and complex to intervene. The intention is to define and explore these precarious situations, which demand critical responses and significant changes.

이 만연된 위태로운 상황이 한 가지 긍정적인 것이 있다면 너무나도 다양하고 광범위하게 펼쳐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손에 닿는 생활 속에서 직접적으로 직면할 수 있어서,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다시 재고할 수 있다는 것, 그런 것이 저희의 바램입니다.

If there is one positive thing in this rampant situation, it's that it is so diverse and widespread. In a way, there are many ideas within our reach that we directly encounter in our daily lives, and our hope is that such things will be reconsidered.

이제까지 학생건축상으로서, 가까운 미래의 건축가로서 사회에 아주 활발하게 관여할 뛰어난 참여자들의 개인적인 재능들이나을 발굴하는 것들, 중요하죠.

As a student architecture award, it is essential for us to unearth outstanding talent from participants who will soon be actively involved in society as architects of the near future.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특별히, 이와 동시에 이 공모전은 하나의 공동의 노력으로써 함께 직면한 수많은 난제들을 면밀히 구체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고 일종의 survey로서 활용하려는 취지가 동시에 있는 공모전입니다.

However, at the same time, especially in the current situation, this competition allows us to look closely at the numerous challenges we face together as a collective effort and simultaneously can become a kind of survey.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완성도 있는 화려한, 물론 멋지게 표현해 주시는 것도 좋지만, 디자인 결과물에 대한 공모전이라기보다는 완성도가 사고쪽에 있는, 그리고 저희가 제시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들여다보고, 비교될 수 있는 공모전이기를 바랍니다.

So, in a way, rather than a competition that yields complete designs, although it is important to represent your ideas at a high level, we hope the high quality of completeness comes from thinking and through your explorations, guided by the methods we suggest and provide. We hope for a competition that stands apart from the rest.

공동의 노력을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제가 심사위원으로서 초대를 받고서 한 명의 다른 심사위원을 초대했습니다.

Speaking of collective efforts, when I was asked to jury this year's award, I invited another juror.

국제공모전이기 때문에 한국 사람이 아닌 다른 배경을 가지고 다른 곳에 있고, 그리고 제가 건축가이기 때문에 건축도시 역사가이자 이론가 한 분을 제가 초대했습니다.

Since this is an international competition, I invited someone who is not Korean and comes from a different background. Since I am an architect, I invited an architectural/urban historian/theorist.

현재 캘리포니아에 우드베리 대학교에 건축학부 교수로 있는 안토니 폰테노 교수이고요.

Anthony Fontenot is currently a professor in the School of Architecture at Woodbury University in California.

이 분은 여러 가지 저술활동들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 그 중 최근에 올해 발간될 중요한 책이 있습니다.

제목은 <Non-Design: Architecture, Liberalism, and the Market>이라고 하죠.

He is actively engaged in various writings and will soon have an important book published this year, titled "Non-Design: Architecture, Liberalism, and the Market."

<비 디자인: 건축과 자유주의 그리고 시장>, 이분이 프린스턴 박사과정으로 있을 때의 엄청난 분량의 논문이 이번 시카고 프레스에서 출간이 됩니다.

"Non-Design: Architecture, Liberalism, and the Market" is his massive doctoral dissertation from Princeton University, which will be published by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레이건 대통령, 대처 수상의 일종의 롤 모델, 정신적 지주였던 프레드릭 하약, 20세기 중반의 오스트리안

경제학자가 소위 신자유주의를 경제 이론을 주창한 당시에는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고 잠꼬대로 들리다가 지금 현재 40년 동안 어떻게 보면은 전지구적으로 자본주의 도시들을 바꾸는 어떤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이 체제의 초기 상황을 비판적으로 들여다보는 그런 연구가 곧 많은 기대와 함께 발간이 될 거고요.

Friedrich Hayek, the spiritual anchor, a kind of role model, to President Reagan and Prime Minister Thatcher, was an Austrian economist in the mid-20th century who advocated the so-called neoliberal economic theory without so much as casting a glance at anyone. Now, in a way, for the last 40 years, it has become the driving force in changing capitalist cities across the globe. Anthony Fontenot's critical look at the initial situation of this system will soon be published with much anticipation.

폰테노 교수는 이외에 많은 국제심포지움과 전시를 계획했고요. 저와, 그리고 한국에 관련된 인연은 정확히 10년 전에 건축가 승효상 선생님과 아티스트 아이웨이웨이가 공동 감독으로 기획하신 도가도비상도라는 제목의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에서 저와 함께 '유명전', (Named Design)이라는 섹션을 기획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10년 만에 한국과 함께 만나게 되겠고요.

Prof. Fontenot has also planned many international symposiums and exhibitions. His relationship with me, and with Korea, began exactly 10 years ago when Architect Seung-H Sang and Artist Ai Weiwei co-directed the Gwangju Design Biennale, titled "Design is Design is not Design 圖可圖非常圖," where Anthony and I co-curated the "Named Design" exhibition. Thus, this occasion marks his encounter with Korea in 10 years since.

그러면은 주제 글을... 안토니 폰테노 교수가 발표합니다. 그는 지금 현재 일종의 난민입니다. 거주하는 LA가 벌써 두 달 전에 뉴스로 세 명 중에 한 명이 이미 코로나에 걸린 워낙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코스타리카에서 바닷가 사람이 많이 있지 않은 곳에서 여러 달 동안... 발전된 기술 덕분에 온 라인 수업은 계속 진행을 하면서... 휴가도 아닌 피신 중입니다.

안토니 폰테노 선생이 보내준 비디오로 먼저 주제에 관한 설명을 들겠습니다.

Prof. Anthony Fontenot will present the text on the main theme. He is currently a kind of refugee. In Los Angeles, where he lives, the news reported two months ago that one out of every three people has already suffered from COVID-19. He is currently in Costa Rica, on a beach, where there aren't many people, and thanks to technology, he has been teaching classes online for months. Again, not on vacation, but in refuge.

Let's first listen to an explanation of the main theme through a video sent in by Anthony Fontenot.

Professor Anthony Fontenot, Woodbury University School of Architecture

안토니 폰테노 교수, 우드버리 대학교 건축학부

The global pandemic has seriously impacted the ongoing social, economic, and ecological crisis, giving rise to a world of extreme precariousness. These changes are marked by income inequality and devastating effects of climate change. This is the context in which Architecture in a Precarious World is conceived. This crisis demands radical forms of strategic thinking, imagination, and action. How might architecture be explored as a relevant tool for addressing

such a precarious world? Can design respond to these overwhelming challenges? These are some of the questions that we hope will be explored in the proposals. This competition is a call to reexamine the everyday world around us and to identify fragile sites, by which we mean, precarious social and ecological conditions that urgently need to be addressed. We encourage participants to explore alternative approaches to resilience through design. This is an appeal to imagine new forms of commons and to set a bold new path for future architects.

전 지구적 팬데믹은 현재 진행중인 사회적, 경제적, 생태학적 위기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극단적인 위태로움의 세계를 낳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소득 불평등과 기후 변화의 파괴적인 영향으로 드러납니다. 이것이 바로 주제인 <위태로운 세계의 건축>이 제시된 배경이죠. 이 위기는 과감한 형태의 전략적 사고와 상상력, 그리고 행동을 요구합니다. 이러한 위태로운 세계를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도구로서 어떻게 건축을 탐구할 수 있을까? 저항하기 힘든 이러한 과제들에 디자인이 대응할 수 있을까? 우리가 제안을 통해 탐구되기를 바라는 질문들입니다. 이번 공모전을 통해 우선적으로 우리 주변의 일상 세계를 재검토하고 취약한 장소, 긴급히 다루어야 할 위태로운 사회/생태적 조건들을 파악해볼 것을 바랍니다. 디자인을 통해 참가자들이 '회복'을 위한 대안적 접근을 탐구하기를 권합니다. 이것은 미래의 건축가들에게 새로운 형태의 공동체를 상상하고, 대담하며 새로운 길을 열고자 하는 호소입니다.

As a strategy, we employ three concepts - LOCAL AND HYPER-SPECIFIC, the NON-ANTHROPOCENTRIC, and ABSENCE - as a point of departure for thinking about design interventions. Participants should carefully study the various local aspects of a place. We encourage a hyper-specific approach to local conditions, issues, and knowledge, as a challenge to the persistent forces of homogenization. The scale of intervention can range from large to extremely small. What is most important is the ability to situate one's design within the specific conditions of the site while instigating new forms of local engagement. The NON-ANTHROPOCENTRIC view maintains that other subjects should be regarded as having equal significance as human beings. We urge you to consider various non-anthropocentric approaches that give ecosystems prominence in the overall framework of the design intervention. The world is defined by complex relationships between humans and non-human agents, including animals, plants, and landscapes. Successfully working with these agents require careful observation and nurturing. To fully investigate its design implications, we encourage new ways of connecting ecology, landscape, and the city. We invite you to explore the idea of ABSENCE, or the strategic removal of certain aspects of the city. The demise of one thing, might instigate the rise of a new thing. For example, one might develop a scenario in which the private house disappears. What types of new dwellings might emerge to replace it? What might happen if the private car would disappear? What would become of all the parking lots and garages, for example?

전략으로서, 우리는 디자인 개입에 대해 생각하기 위한 출발점으로 지역적, 초(超)-특정적(LOCAL AND HYPER-SPECIFIC), 비(非)-인간중심적(NON-ANTHROPOCENTRIC), 그리고 부재(ABSENCE)라는 세 가지 개념을 적용합니다. 첫째, 참가자들은 장소의 다양한 지역적 측면을 주의 깊게 탐구해야 합니다. '균질화'라는 지속적인 힘에 대한 도전으로, 지역 조건, 문제 및 지식에 대한 초특정적인 접근법을 권장합니다. 개입의

규모는 큰 것에서부터 아주 작은 것까지 다양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새로운 형태의 지역적 참여를 고무하면서, 특정 현장의 조건에 디자인을 배치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둘째, 비(非)-인간중심적 관점은 인간 이외의 다른 주체들도 인간과 동등한 중요도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사고입니다. 디자인 개입의 전반적인 틀에서 생태계를 두드러지게 하는 다양한 비인류 중심적인 접근 방식을 고려하길 촉구합니다. 세계는 동물, 식물, 랜드스케이프를 포함한 인간과 비인간 주체 사이의 복잡한 관계에 의해 정의됩니다. 이러한 주체들과 성공적으로 작업하려면 주의 깊은 관찰과 보호, 육성이 필요합니다. 디자인을 통한 함의를 충분히 탐구하기 위해 생태, 경관 및 도시를 연결하는 새로운 방법들을 생각해보는 것을 권장합니다. 세 번째는 부재의 개념, 이를테면 도시의 특정한 측면을 제거하는 것을 탐구하는 전략입니다. 하나의 종말은 다른 새로운 것의 출현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사유인 집이 사라지면 어떻게 될지, 시나리오를 발전시켜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종류의 새로운 주거 형태가 그것을 대체할 수 있을까요? 만약 자가용이 사라진다면 모든 주차장과 차고는 어떻게 될까요?

The proposed method of working follows a sequence of four steps.

제안하는 작업 방법은 다음 네 단계의 순서를 따라주길 바랍니다.

1. Each participant should interpret what a precarious state means for them and define a thesis.
1. 각 참가자는 (특정한) 위태로운 상태가 그들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숙고하고 관심 영역을 정의합니다.

2. Given that architects cannot solve such complex issues alone, participants should situate themselves as an engaged architect – on align that works with diverse groups representing the public sector, such as activists, community leaders, and workers.

2. 건축가가 이러한 복잡한 문제를 홀로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참가자는 공공 섹터, 활동가, 커뮤니티 리더 및 노동자 등의 다양한 관련 그룹들과 연루되어 건축가로서 협력하고 참여하는 상황을 구상합니다.

3. Locate the intervention in a specific context. Explore the urban landscapes of the early 21st century to find new opportunities within the existing conditions of a place.

3. 특정 컨텍스트에 개입합니다. 현 21세기 초의 도시 풍경을 탐험하며 기존하는 장소 조건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아보세요.

4. Design with intention - and regardless of the outcome, be prepared to explore and defend unorthodox approaches to design.

4. 의도를 가지고 설계하세요. - 결과물에 연연하기 보다는 일반적이지 않은 접근법에도 열려 이를 탐구하고 방어할 준비를 갖추고 말입니다.

Finally, we hope that by engaging some of the more fundamental questions of our time, future architects might expand the possibilities of architecture. We wish you best of luck and thank you.

마지막으로, 우리는 우리 시대의 보다 근본적인 질문들과 연루되면서 미래의 건축가들이 건축의 가능성을 확대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민석(건축사사무소 매스스터디스 대표)
Minsuk Cho (Principal, Mass Studies)

주제설명 들으셨고 제가 이어서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You have just heard an explanation of the main theme, and I will provide some additional insight.

들으셨듯이 열려 있는 이 주제는 먼저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이 세 가지 전략은 공통적으로 팬데믹을 겪으면서 떠오른 저희 심사위원들의 생각인데, 이 전략들을 꼭 따를 필요는 없고, 참조하셔도 좋고, 일종의 힌트 정도로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This open topic first suggests a strategy. The three strategies are thoughts that we jurors shared while dealing with the current pandemic. It is not mandatory to follow these strategies, but you can refer to them and consider them hints.

참여자들의 다른 놀라운 새로운 관점이나, 통찰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도 좋습니다.

Participants are more than welcome to share surprising perspectives and insights.

첫 번째는 Local, Hyper Specific이라고 한, 지역적, 초특정적이라고 한 생각은 이렇습니다. 두 가지인데 팬데믹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된 것은 새삼스럽긴 하지만, 우선 전지구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생물학적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지역이나 국가에 따라서 문화, 역사에 따라서 굉장히 그 양태가 다릅니다. 그런 면에서 각 응모자들이 위치한 상태에서 다양한 통찰들이 있을 것이고, 관련해 굉장히 특정한 그런 솔루션들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또 한가지는 팬데믹 때문에 당연히 모든 분들의 이동 반경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를테면 환경 위기에 관련해 이를테면, 아마존의 레인포레스트에 대해 걱정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한국에 계신 분에게는 조금 추상적일 수 있겠죠. 차라리 주변에서 찾아볼 수 있는 생태계와의 공존 방식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작게는 바로 문 밖에 있는 길냥이들과의 공존 이라든지.. 관찰 가능한 아주 구체적인 관찰들에서 시작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New Normal 이라던지, 아니면은 다보스 World Economic Forum에서 말하는 The Great Reset, 같은 거창 하면서도 좀 뜬구름 잡는 얘기들, 그런 말들은 안 여기서는 안 들어도 좋겠습니다.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The first strategy is that of the “Local and Hyper-Specific.” We have come to realize two things through the pandemic, of which, first, it is a global biological event. However, depending on the region of the world and the country, the pattern is very different according to its culture and history. In that respect, there will be various insights into the present state of each participant and very specific solutions. Another thing is that the pandemic has, of course, reduced everyone’s radius of movement. For example, you might be worried about the Amazon Rainforest within the current environmental crisis, but it might be a little abstract for people in Korea. Instead, we can think of a way to coexist with the ecosystem that can be found around us. For example, you can start with very specific observations, like the coexistence of stray cats right outside your door. We do not have to discuss the New Normal being mentioned in Silicon Valley or chase grandiose and up-and-coming stories like the Great Reset from the World Economic Forum’s Davos Agenda. We hope there will be various unique stories and issues.

두 번째는 ‘비인간 중심적인’,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팬데믹 과정을 공동으로 겪으면서 모두가 인지하게 된 것은 인류가 이제까지 지구에서 유일한 주체로서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해 온 신화를 보기 좋게 파괴한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다른 주체들과 공존하고 있는 것, 이런 어떤 각성들이 계속 요구가 돼 온 지난 수십 수년간 있었지만요. 이제 조금 더 뼈저리게 저희들이 느끼면서 동, 식물, landscape 등 여러 가지의 다른 주체들을 망각하고 위태롭게 만들었습니다. 도시나 건축 행위라는 것은 이제까지는 인간중심적인 규율이었습니다. 이번에 다른 생각으로 자연환경과 특별한 방식으로 공존하는 방식들을 서울에서는 더할 나위도 없고요, 이 지구상의 여러 지역들에서 다양한 관망들이 나왔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The second strategy mentioned is that of the “Non-Anthropocentric.” What everyone has come to recognize collectively through the pandemic is the experience of destroying the myth that mankind is the only protagonist to have control on Earth. Of course, we have coexisted with others, and for decades, this kind of awakening has been a constant demand. Now, as we feel it bone-deep, we have lost sight of and endangered the other subjects, such as animals, plants, and landscape. Until now, urban and architectural practices have been human-centric disciplines. This time, in a different way of thinking, ways to coexist with nature in a unique way are ideal for Seoul, and we hope that diverse views and networks will emerge from various parts of the world.

세 번째는 Absence, 부재에 관한 힌트입니다. 상상력이라는 말이 있죠. 건축은 상상력을 바탕으로 한다고 합니다. 세상에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뭔가 상상을 하고 그것을 구현에 가는 과정이라 하면은 파상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파괴할 때 “파”자죠. 있는 것을 없는 것으로 생각해 보는 것, 이런 사고에서 오는 힘이 또한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팬데믹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인터넷으로 바라보는 타임스퀘어의 갑자기 텅 빈 모습이라든지, 베니스의 산마르코 광장이 관광객으로 찬 것이 아니고 수면이 올라서 물바다가 되어 있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초현실적인 모습들이 파상력이 아닌 현실의 광경들로 펼쳐지고 있고, 그것이 꼭 인터넷의 이미지만이 아니라 주변에 길을 가다 보면은 창자가 다 드러나 있는 것 같은 텅 빈 가게들이나 유명도시 같은 모습들을 일상에서 경험하고 있지요. 이런 경험들을 어찌보면 새로운 도시 공간이나 건축을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 꼭 첨가하고 뭘 만드는 게 일이 아니고 어떤 부재의 상상을, 또는 파상을 하나의 방법으로써 취할 수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원자폭탄이 없는 세상을 상상하면서 어떤 단초를 얻을 수 있겠고요. 가까이에서 자가용이 없고 모든 개인 차들이 공유되었을 때 도시가 어떤 식으로 바뀔지, 사실 그 주제는 제가 몇 년 전에 한번 한국에서 공모전에서 다룬 적이 있었고요. 그 이외에도 많을 겁니다. 어떤 하나의 방향으로써 생각해 볼 역발상적인 제안이라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The third is a hint about “Absence.” It has to do with imagination. Architecture is based on imagination. To imagine what is not in the world, the process of imagining something and implementing it – there is a word, ‘pa-sang (破像).’ ‘Pa’ as in ‘destroy.’ To imagine what is present and what is absent. We live in a time where the power of such thinking is necessary. Through the pandemic, we see images on the Internet of the suddenly empty space of Times Square in NY or the San Marco Square in Venice, not filled with tourists but instead with a sea of rising water. These surreal images unfold as scenes of reality. They are not just images on the Internet, but when you walk down the street in your daily life, you experience empty shops revealing their innards and ghost towns. Having such observations and experiences, a way to think about a new urban space or architecture is not necessarily additive, and it is not a task to

make something. It can encourage one to imagine the 'absence' of something as a method of working. Imaging a world without the atomic bomb could be a motive. How will the city change when there are no cars and all private cars are shared? In fact, this was a question posed in a competition I juried in Korea a few years ago. There are many other questions. It can be thought of as a reverse-imagination, a counterproposal.

다시 말씀드리면 이 세 가지가 강요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또 다른 자유로운 생각들, 상상들 또는 파상들이 제시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Again, do not feel compelled to stick to these three strategies. We hope that you present to us other kinds of free-thinking and imagination.

다음은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Next, I will speak more about the methods.

말씀드렸지만 어떤 완성도 있는 디자인 결과물, 꼭 이런 것보다는 여기서는 특별히 구체적으로 네 가지 단계의 사고를 정리해 주시고, 그 네 가지 단계가 나란히 비교가 될 수 있게 이번에 좀 특별한 생각을 해 봤습니다. As previously mentioned, we are not necessarily asking for a complete design product, rather, here, we ask that you specifically organize your thinking in four parts so that they can be compared side to side.

첫 번째는 무엇이 위태로운 상태인지,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대상들, 어떤 부분들이 케어가 필요하고 개선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이 우선이겠구요.

First, identify a precarious state. What are your interests, subjects that you find around you? What parts need care and nurturing? These kinds of questions should come first.

두 번째는 당연히 이러한 대상이, 건축으로만 해결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활동이 좀 부자유스러운 시기이기는 하지만 어떤 식의 협력이 가능한지 상상해 보고 그 어떤 협력의 밑그림을 그려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부분은 시장 논리하고는 다르게 돌아 가야 될 공공 섹터의 협력이 있겠고요. 지금도 한국을 비롯해서 여러 곳에서 비슷한 목표를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역 사회 활동가라든지 전문가, 환경단체 등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시게루반 건축가를 예로 들 수 있겠네요. 30년 전 고베 대지진 이후에 UN을 비롯한 다양한 활동의 연계가 아니었으면 지금 그런 큰 업적과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었을 거니까요. 이런 상상을 함께 제안에 포함시키자는 겁니다. 건축가 혼자서 할 수 없는 일이니까요.

Second, of course, is that architecture alone will not solve these complex issues. It will be an opportunity for you to imagine what kind of cooperation is possible and outline new forms of collaboration. There will be cooperation from the public sector in many ways, which will require a different way of working than from the market logic. There are a number of community activists, experts, and environmental groups, etc., that have similar goals and interests in many places, including Korea. For example, take Architect Shigeru Ban. After the Kobe earthquake 30 years ago, if it had not been for the UN and the connection of various other activities, there might not have been such outstanding achievements and influences. The aim is to include such

imaginations of collaboration in your proposals. Architects cannot do it alone.

그 다음은 어디에 개입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구체적인 위치, 장소를 중요하게 볼 것입니다. 관련해 많은 부분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주변 일상에서 찾아볼 수 있는 곳으로 구체적인 설득력이 있는 대상지였으면 좋겠어요. 아주 특정한 장소의 이해를 통해 동시에 보편적일 수 있는 얘기로 끌어냈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건축가로서 경험하는 지금의 서울을 예로 든다면 유휴공간이라든지, 기회를 가진 땅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히 공공영역에서 좋은 의도로 개발되는 장소들은 굉장히 제약 조건들이 많지만 그래서 기발함이 요구됩니다. 어떤 장소를 선택하는 것 자체가 디자인 이상의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도전의 많은 부분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현 경제체제의 어떤 결과로서 많은 공공 영역, 공공재가 될 수 있는 영역들이 점차로 잠식되고 있어 온 현재 상황의 관망에 관여하고요.

The next question is where to intervene. This will take into consideration the importance of location and place. As I mentioned earlier, I hope that these places are found in your daily lives – sites with specific persuasive power. I encourage you to achieve an understanding of a very specific place and simultaneously develop it into a universal narrative. If I take present-day Seoul as an example of my experience as an architect, there aren't so many idle, unused spaces and land opportunities. Especially in the public domain, places developed with good intentions are met with many constraints, thus requiring ingenuity. Selecting a site is more important than the design. Much of this challenge, as mentioned earlier, is involved in the current situation where, due to the current economic system, many public spheres, which become commodified, are gradually eroding.

그 다음은 마지막은 건축가가 되어서 어떤 의도를 정확히 가지고 이 네 단계를 거쳐서 설계를 하자는 겁니다. 저는 professional 건축가로서 30년 가까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저에게 주어진 일들은 이 4 단계에서 주어집니다. 여러분들은 아직은 학생이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맞이할 세상의 막중한 일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질 제가 다룰 수 없는 어떤 도전들과 거기에 대비한 생각들을 준비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저에게도 많은 배움이 될 텐데, 이번에 참여하실 분들은 사회에 나가기 전 몇 번 남지 않은 기회일 겁니다. 이 기회를 잘 이용해서 저희가 말미에 ‘미래 건축가의 역할’이라고 한, 건축가로서 세상에서 어떻게 항해를 하여야 될 지에 관한 어떤 가이드가 됐으면 하는 바램도 있습니다.

The last step is to become an architect and design with intention through these four methods. I have been working as a professional architect for nearly 30 years. Most of the tasks given to me are only at the fourth stage. You are still students, and you will have to prepare for some of the great things you will face in the world. You will have to prepare for the challenges you will meet that I will not. This will be a chance for me to learn, but for the participants, this can be one of the few opportunities left for you to explore before entering society. By taking advantage of this opportunity, I hope that this can be a kind of guide to what we mention at the end of the brief as the “role of the future architect” and how to navigate the world as an architect.

혹자는 말합니다. 앞으로 지금 세상의 새로운 산업들, 특히 이제 AI, 로봇이라든지 하는 것들이 많은 직업들을 잠식할 것이라고요. 얼마 전에 기사를 읽었습니다. 앞으로 의사 선생님이 쓰는 진단서보다, 빅 데이터, 딥러닝을 통한, AI에 의한 진단이, 과정은 이해가 안 되어도 의사가 진단하는 것보다 더 정확할 거라고요. 그래서

의사선생님들의 직업이 없어질 것이다. 그러나 미래에도 간호사 직업은 남을 것이라는 기사도 읽었습니다. 흥미로운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건축가들은 본인들이 의사처럼 주어진 문제들을 아주 논리적으로 해결하고 어딜 가나 정답을 만들고 거기에 form giver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여겨 왔죠. 그런데 이 역할은 AI에 위협당한다는 거고요. 간호사의 역할이라는 것은 좀 더 care를 하고 공감을 하고, 좀 더 친밀한 관계에서 환자, 대상과 함께 긴 시간 관찰을 하는 역할이죠. 의사선생님에게도 물론 공통적인 부분이 있긴 하지만, 이와는 조금 다른 역할로 다른 중요함을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건축가 직업이 살아남으려면 간호사의 역할을 생각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Some say that the new industries of the world, especially AI and robots, will encroach on many jobs in the future. I recently read an article. In the future, AI diagnosis through big data and deep learning will be more accurate than the diagnosis by a doctor even if the process is not understood. So, doctors' jobs will disappear. But I also read an article that the nurses' jobs will remain. It's an intriguing story. I say this because architects consider themselves to be like doctors, solving a given problem very logically, coming up with answers wherever they go, playing the role of the "form giver." But this role is being threatened by AI. A nurse's role is to care and empathize and observe patients at length in a more intimate relationship. Doctors, of course, have that in common, but they have a different role and importance. In a way, I think it might serve us better to think about the role of a nurse for the architect to survive.

이 공모를 통해서 좀 더 건축가와 건축이 할 수 있는 일들의 범주를 확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라구요. We hope that this competition will provide a great opportunity to expand the scope of what architects and architecture can do.

마지막으로 이 공모전은 제17회 베니스비엔날레 건축전. 1년이 지금 늦춰졌습니다. 그러나 계획대로라면 올해 5월에 시작이 되고요. 신혜원 건축가가 예술감독을 맡은 한국관의 <미래학교>와 함께 하겠습니다. 올해 한국관은 전시라기 보다는 환경이나 이런 기후 위기 등의 생각들을 함께 나누는 취지여서 공유되면 좋을 것 같아서요. 관심 있게 봐 주시고 많은 참여가 있고 이를 통해서 이 세상 조금이나마 어려운 점들을 함께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Lastly, this competition is in partnership with Korean Pavilion *Future School*, under the direction of architect Haewon Shin, at the 17th Venice Architecture Biennale. The Biennale has been delayed for a year now. But if according to plan, it will start in May of this year. The Korean Pavilion *Future School* is not a traditional exhibition but rather a platform to share thoughts and dialog about issues such as the environment and the climate crisis, to name just a few. It is a great occasion to share our ideas as well. Please show your interest and engagement. I hope this gives us a chance to understand the difficulties of this world together. Thank you.